

# 전남대병원 꼬리 무는 채용 의혹들

### 박용진 의원 추가 의혹 제기 “전 임직원 자녀도 의심스럽다” 해당 의혹 사무국장 보직 사퇴 청년단체, 사과·면담 요구 농성

전남대병원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진 채용비리 의혹 이외에 또 다른 비리 의혹이 추가로 폭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진행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2018년 채용된 전남대병원 전 임직원 자녀도 채용비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8년 영상의학과 합격자 중 1등은 김성완 사무국장 아들, 6등은 아들의 여자친구였는데, 또 다른 임직원의 자녀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2등으로 합격한 범모씨는 전남대병원 본원 영상의학과 실장으로 근무했던 범희남씨 아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 범모씨 필기점수는 87점으로 7등이었지만, 면접에서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아 2등으로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김 사무국장이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드디스크 교체를 채용비리 증거를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본 것이다.

박 의원은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면 수리요청서를 내야 하고 PC유지보수팀이 움직여야 한다”면서 “그런데 김성완 사무국장은 병원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전화로 교체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 사무국장은 이날 보직 사퇴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2013년 조카 채용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 요구를 받았지만, 전남대병원은 징계 시한이 지난 뒤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

또한 2018년 자신의 아들 채용 당시 시험관 리위원으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 경징계를 요구

받았으나, 장관상 포상 등을 이유로 경고로 감경됐다. 지난 15일 전남대병원과 2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 사무국장이 연관된 채용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이날 보직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는 지난 2018년 교육부 감사에서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 9명의 등 조치를 요구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징계 조치를 받은 직원 중 일부가 채용 업무에 참여했으나,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이유로 감봉 1명, 경고 11명으로 조치했다.

한편, 광주청년민중당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무국장 등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병원장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도 했다.

앞서 전남대병원 노조는 지난 9월 광주지방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채용 부정과 관련된 감사결과 공개를 촉구하며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서울=김현수기자 or-2002@srb.co.kr



‘관문형 폴리’ 조감도.

## 도심재생 프로젝트...국제적 가치 인정

### ‘광주폴리’ 어떻게 추진돼 왔나

#### 2010년부터 85억 들여 30작품 설치 31억 투입 ‘관문형폴리’ 4차 추진 중

광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도심재생 프로젝트 ‘광주폴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폴리(Folly)의 건축학적 의미는 ‘본래의 기능을 잃고 장식적 역할을 하는 건축물’을 뜻한다.

광주폴리는 도심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로 국제적 유명건축가, 전문예술인을 감독으로 내세워 도심재생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현상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10년 1차 폴리를 시작으로 현재 4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승호상 건축가를 총감독으로 위촉해 사업비 33억을 투입한 1차 폴리스 사업은 ‘도심재생과 사라진 역사의 복원’이라는 주제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진행됐다. 스페인 작가 후안헤레로스가 장동로터리에 설치한 ‘소통의 오두막’을 비롯해 6개국에서 11개 작품을 설치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진행된 2차 폴리 사업의 주제는 ‘인권과 공공공간’이었다. 독일 니콜라우스 히르쉬를 총감독으로 ‘기억의 상자(금남로 지하상가)’ 등 8개 작품이 설치됐

다. 9개국에서 8개 팀이 참여했고 총 사업비는 25억이었다.

3차 폴리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진행됐다. ‘도시의 일상성-맛과 멋’을 주제로 27억원 사업비가 투입됐다. 천의영씨가 총감독을 맡았고 독일 등 4개국에서 11개 팀이 참여해 11개 작품을 설치했다.

1차부터 3차까지 설치된 작품만 모두 30개로 사업비 85억이 투입됐다.

2017년 2월부터는 ‘관문형 폴리’를 주제로 4차 폴리 사업(1개 작품)이 진행 중이다. 내년 6월까지 31억원(폴리 22억원·운영비 등 7억원·보완비용 2억원)이 투입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무등의 빛’ 작품이 설치된다.

강필서씨가 총감독으로 위촉됐다.

작품은 내년 4월 완성될 예정이다. 작품은 광주의 3향(이향·예향·미향)을 무등산으로 품어 빛으로 탄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폴리를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및 민주인권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광주만의 독특한 문화관광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었다. 세계적인 건축·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광주폴리 프로젝트에 참여해 구도심 재생 거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 “사학 이사장직, 아들·손자로 대물림”

### 신경민 의원 시·도교육청 국감 광주·전남 58.9% 친인척에 세습

광주·전남지역 사립학교 법인 10곳 중 6곳에서 자식, 손자 등에게 이사장직을 세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 78개 중등사학 법인 이사장 중 46명(58.9%)이 설립자 또는 전 이사장의 친인척에게 세습된 경우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는 29개 사학법인 중 58.6%인 17개 법인이, 전남은 49개 법인 중 59.2%인 29개 법인이 해당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지만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절반 이상의 중등사학 법인에서는 설립자 본인 또는

친인척 세습을 통해 수십년 동안 사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설립자 본인 또는 친인척 가족이 운영하는 중등사학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법인 이사회 임원들이 수십년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폐쇄적인 학교를 만드는 지름길이다”며 “무제한적으로 중임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에 대해 검토할 필요”라고 지적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 “광장도, 대의도 제대로 작동 못해”

### 전남대 선거정치연구소 주최로 광장정치와 민주주의 긴급토론

현재 광장과 대의민주주의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대 선거정치연구소가 22일 오후 4시 광주 YMCA 백제실에서 개최한 ‘2019광장정치와

한국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에서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발제문에서 “2017년 촛불혁명은 광장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잘 결합한 헤더라키(혼합) 민주주의였고 명예혁명이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임 명예교수는 또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 정치적 공격으로 광장은 분열됐다”며 “일차적으로 주권자 대표가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대의하

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권자 대표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됐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등 ‘대표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선출된 대표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아닌 전문관료, 언론, 검찰, 사법부의 이익을 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IT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온라인 광장 민주주의가 부활했다”며 “대의와 광장이 혼합된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되며 주권은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구소, 교통가족과 함께 친절하고 안전한 광주로!









• 교육 및 시설 대관 문의 • ☎ 062) 572-8650 ~ 2